

2023~2025년도 ICT 표준 성과 검증 결과 분석: ITU-T를 중심으로

김찬영*, 구정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ykim@tta.or.kr* espero@tta.or.kr

An Analysis of ICT Standard Performance Verification Results (2023 - 2025): Focusing on ITU-T

Kim Chanyoung*, Koo Jung Ho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요약

본 논문은 연구성과 전담기관 제도에 따라 ICT 표준 성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행한 2023~2025년도 ITU-T 표준 성과 검증 결과를 분석한다. 최근 3년간 승인률은 62.1%(2023년) → 67.0%(2024년) → 84.5%(2025년)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반려율은 같은 기간 37.9% → 33.0% → 1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 관리 체계의 정교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제도의 성숙도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I. 서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검증·활용의 과정을 거치며 관리된다. 이 법률은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 연구성과 전담기관 제도이다. ICT 분야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ICT 표준 성과의 검증과 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는 ICT 표준화를 주도하는 국제 공식표준화 기구로,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확산·보급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ITU-T 성과의 검증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성과 확산과 제도 성숙도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제출 성과 품질의 지속적 개선, 등록자의 경험 축적, 전담기관의 교육·홍보 확대, 그리고 제도 운영의 안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률의 지속적인 상승은 단순한 수치상의 개선이 아니라 ▲등록 과정의 정확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원 역량 강화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ICT 표준 성과 관리 체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등록	승인	반려	승인율
2023년	443	271	168	62.1 %
2024년	494	331	163	67.0 %
2025년	219	185	34	84.5 %

표 1. ICT 표준 성과 연도별 검증 결과(ITU-T)

II. 본론

1. ITU-T 표준 성과 등록·승인 현황 및 최근 3년간 추이

최근 3년간 ITU-T 관련 표준 성과는 2023년 443건, 2024년 494건, 2025년 219건으로 등록되었다. 최근 3년간 ITU-T 표준 성과 검증 결과를 보면, 2023년 성과의 승인률은 62.1%였으며, 2024년에는 67.0%로 약 5%p 상승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성과 등록 요건(예: 기여율, 증빙자료 준비)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제출 품질이 개선된 것과, 전담기관(TTA)이 등록 매뉴얼 제공, 교육, 설명회를 통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려(증빙자료 부족, 중복 등록, 비관리성과 등)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은 승인률이 84.5%에 이르러 2024년도에 비해 약 17.5%p의 큰 폭

2. ITU-T 표준 성과 반려 사례 현황과 시사점

최근 3년간 ITU-T 성과 중 반려 건수는 2023년 168건(37.9%), 2024년 163건(33.0%), 2025년 34건(15.5%)으로 건수와 비율 모두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일정 규모의 반려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려 사유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여율 100% 초과 사례는 2023년 83건, 2024년 102건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3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기여율 산정 기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되면서 등록자의 이해도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책기초나 작업문서로 인한 반려 역시 2023년 48건, 2024년 38건에서 2025년에는 3건으로 줄어들어 성과 등록 범위에 대한 구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확인 불가

(추가 증빙 필요) 사례는 2025년에 10건으로 증가하여, 증빙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드러냈다.

반려사유	2023	2024	2025
당해연도 성과아님	3	1	4
확인불가(추가증빙자료필요)	2	2	10
기여율 100% 초과	83	102	3
중복 등록 성과	9	1	2
미채택 성과(기고서 제안)	22	18	10
정책기고/작업문서	48	38	3
기타사유	1	1	2
합계	168	163	34

표 2. 연도별 ICT 표준 성과 반려 현황(ITU-T)

이러한 반려 사례는 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이 등록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실수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려 사유는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등록 절차를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학습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 사례는 단순한 오류의 기록이 아니라, 향후 성과 등록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포인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반려 사유는 주로 증빙자료 부족,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고 제출·제안만 이루어진 성과, 전담기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 기여율 초과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적 결함보다는 등록자의 이해 부족이나 준비 미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등록 단계에서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배포 강화, 연구자용 체크리스트와 같은 사전 점검 방식의 활용, 전담기관의 맞춤형 교육과 설명회 병행 등을 통해 등록 과정에서의 오류와 누락을 줄임으로써 반려율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본 연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ITU-T 표준 성과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ICT 표준 성과 관리 체계의 성숙도를 확인하였다. 승인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에는 8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성과 품질의 향상과 전담기관의 지원 강화가 제도 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려 사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연구자들이 성과 등록 과정에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제도적 지원과 안내가 강화되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매뉴얼·가이드라인 보완, 연구자용 사전 점검 방식 활용, 전담기관의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 등을 통해 반려율을 낮추고 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ICT 표준 성과 관리 체계가 단순한 등록·검증을 넘어,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의 질적 향상과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CKNOWLEDGMENT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2022-II220001, ICT 표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연구)

참 고 문 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82호, 2023.